

야규민화지도



4 히로오카의 코시이타지조 (요통지장)



히로오카

가사기초

JR간사이혼선

163

미나미야마시로무라야쿠바 (마을사무소)

미나미야마시로무라(마을)



1 야규 세키슈사이와 이토세키

3 쥬베이스기(삼나무)

야규



다카야마 댐

82

곤겐신사

753

6 원숭이의 간

2 오후지 우물

사카하라



오야규



4

9 소노우공주 이야기

쓰키가세

엔조지(절)
권

잇타이산(산)

172

누노메 댐

나베쿠라케이(골짜기)

나라시

184

7 미마토게 고개의 지장보살



오오노야스마로의 무덤

미마

고노산(산)

8 덴구의 돌싸움

야마조에무라야쿠바 (마을사무소)



5 '묘가'의 지명유래

묘가



214

가미쓰 댐

25

덴구야마(산)

야마베군 야마조에무라 (마을)

아오바야마(산)

🏰 지도의 민화 장소에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

① 야규 세키슈사이와 이토세키(칼자국 난 바위)

옛날, 야규 세키슈사이는 이와다테 신사 주위에서 매일 경 수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구(얼굴이 붉고 코가 큰 상상의 괴물)가 나와, 세키슈사이를 덮쳤는데 세키슈사이는 그 괴물을 "야앗!"하고 단칼에 베어 버렸다. 그런데 이튿날 돌아가 보니 민구는 없고, 그곳에 있던 큰 바위가 두 동강이 나 있었다. 그때부터 그 돌을 이토세키(칼자국 난 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 지금도, 그 돌에는 민구에게 입혔던 상처가 남아있다.

② 오후지 이도(우물)

야규 무네노리는 가스가 대사의 신관이 있는 곳으로 자주 바둑을 두러 갔다. 어느 날 무네노리가, 어느 파처럼 말을 타고 가에리바사 고개를 넘어 사카하라 마을까지 오니, 길가의 우물에서 한 처녀가 혼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무네노리는 갑자기 말을 세우고 "이보시오, 아가씨, 그 통의 물결의 수는 몇 개인가"라고 물었다. 처녀는 바로 "네, 21개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물결(나미)은 7(나나)과 3(미)을 곱하여 21이다. 그래서 21이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그러자 이번엔 처녀가 "그렇다면, 영주님, 야규에서 나라까지 영주님의 말이 짙은 말발굽 자국이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되물었다. 무네노리는 답하지 못했다. 한편으론 '영리한 아가씨구나'라고 생각하여 감탄하였다. 이 처녀가 무네노리의 측실이 된 오후지노카타이다. 야규 가의 선조 대대의 위패를 모신 절(菩提寺)인 호우토쿠지 절의 레츠도기센 스님의 어머니이다. 마을 사람은 이 우물을 "오후지 우물"이라고 부르며, 지금도 그 우물에선 끊임없이 물이 펄펄 솟아 넘치고 있다고 한다. 오후지가 말을 타고 무네노리에게 시경할 때, 그녀의 어머니가 사카하라 마을과 야규 마을 사이의 고개까지 베풀어, 이별을 아쉬워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곳을 가에리바사토게 고개라고 부르고 있다.

③ 쥬베이 스키

옛날에는 야규 가문의 무덤은 쥬구우지 절에 있었다. 어느 날, 쥬베이는 예도로 검술 수행을 가기로 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 쥬베이는 조상의 묘에 참배하러 갔다. 그리고 그는 삼나무를 심고 두 손을 모아 빌었다. 그 나무가 크게 자라서 쥬베이 스키(삼나무)라고 불렸었지만, 어느 날 벼락이 떨어져 말라 죽어 버렸다고 한다.

④ 히로오카의 고시타지조(요통지장)

옛날에 히로오카 마을에 후코우지라는 절이 있었다. 그곳에는 육체지장보살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고시타지조(요통지장보살)라 불렀다. 그곳에 참배하면 요통이 낫다고 하여 사람들은 종종 그곳에 참배하러 가곤 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흰 쌀을 조금 넣은 주머니를 들고, 지팡이를 짚고 참배하러 갔다. 하지만 매일매일 참배를 해도 할머니의 허리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다. 어느 날 할머니는 "나는 이제 허리도 아프고, 살아있어도 쓸모가 없습니다. 빨리 데리러 와 주십시오."라고 빌었다. 그러자, 육체지장보살이 나타나서, "오나, 내일 영장 데리러 오마."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놀라서 "내일 하고 그 다음 날의 그 다음 날에 데리러 와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육체지장보살은 "오나, 내일하고 그 다음 날의 그 다음 날에 데리러 와 주마"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당황해서 "내일 하고 다음 날의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의 다음 날, 다시 또 다음 날의 다음 날....."이라고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빌고는 돌아갔다고 한다. 사람들은 육체지장보살이 할머니의 황당한 소원을 잘 들어주었다며 말하곤 했다.

⑤ 묘가의 지명유래

옛날, 어느 절에 고승과 동자승이 있었다. 동자승은 기억력이 나빠서 불경을 가르쳐도, 다른 것을 가르쳐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자승이 병이 들어 죽어버렸다. 그런데 동자승의 무덤의 주변에서 처음 보는 싹이 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묘한 것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며, 그 싹을 '묘가'라고 이름 지었다. 동자승 때문인지, 이 묘가를 먹은 사람들은 광박광박 원가를 잘 잊어버린다고 한다. 묘가(일본 생강)가 잘 나기 때문에 이곳을 묘가초(한국의 '동'에 해당하는 지역명)라고 부르게 되었다.

⑥ 원숭이의 간

어느 날, 용궁의 선녀가 "원숭이의 간을 먹어 보고 싶어"라고 말했다. 모두가 "원숭이는 어디에 있을까?"라며 곤란해하고 있었는데, 사카하라 마을에서 시종들기 위해서 왔던 범치가 "우리 마을에, 이치쿠보자루라고 하는 훌륭한 원숭이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사카하라 마을에 미야부치(돌로 만든 연못)를 만들어 사카하라 마을과 용궁을 잇는 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높은 거북이가 이치쿠보자루를 용궁에까지 데려오기로 하였다. 높은 거북은 새로운 길 덕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사카하라 마을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강에 있던 거북이에게 길을 물어, 이치쿠보야마 산에 올라갔다. 산에 가 보니 큰 강나무 위에 이치쿠보자루가 줄고 있었다. 높은 거북은 "오늘 밤 용궁에서 새로운 길이 생긴 것을 축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치쿠보자루는 기뻐하며 높은 거북의 등에 타고 용궁으로 향했다. 용궁에 도착하자 범치가 조용히 이치쿠보자루에게 다가가 "너는 오늘 밤 선녀에게 간을 먹히게 되어 있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이치쿠보자루는 용궁의 대청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아차, 큰일이군.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간을 씻고 강나무에 널어두고는, 그대로 두고 와 버렸어"라고 말했다. 높은 거북은 황급히 이치쿠보자루를 태워 간을 가지러 돌아갔다. 사카하라 마을에 도착해서 강나무 밑까지 오자 이치쿠보자루는 나무 위로 포르르 올라갔다. 높은 거북이 나무 밑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이치쿠보자루는 내려오지 않았다. 높은 거북은 용궁에 돌아간 뒤, 엄청 혼이 났다. 그리고 범치는 두 번 다시 강에 돌아가지 못했다고 한다.

⑦ 미마토게 고개의 지장보살

옛날에 사카이의 어부들이 밤에 생선을 잡으려고 하면 동쪽에서 번쩍번쩍 빛이 비쳤다. 그 빛이 너무 밝아서 물고기가 잡히질 않았다. 게다가 그 빛이 매일 밤 계속되자 곤란해진 어부들은 어디서 무엇이 빛나고 있는지 찾으러 빛을 따라갔다. 그러다가 미마토게 고개까지 오게 되었다. 미마토게 고개의 정상에는 작은 지장보살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빛나고 있었다. 사카이의 어부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장보살상을 낮은 곳으로 옮겨주세요. 지장보살상의 빛이 사카이의 바다까지 비추어서 고기가 잡히질 않습니다. 그 대신에 매년 생선을 가지고 오겠습니다."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미마 마을 사람들이 지장보살상을 매우 낮은 곳으로 옮겼다. 덕분에 사카이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 있게 된 사카이의 사람들은 매년 미마 마을에 경어리를 가져다주었다고 한다.

⑧ 덴구의 돌싸움

옛날에 고노 산의 덴구가 아오바야마 산의 덴구를 짓밟게 놀려서 아오바야마 산의 덴구가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그들은 싸움을 하게 되어 서로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아오바야마 산의 덴구는 고노 산을 향해 커다란 바위와 돌을 계속해서 쫓아냈다. 그 바위들이 쫓아서 나베쿠라 계곡이 되었다. 고노 산의 덴구는 약한 척을 하며 아오바야마 산에 돌을 던지지 않았다. 그러자 아오바야마 산에는 돌과 돌이 없어져서 민둥산이 되어버렸다. 그와 반대로 고노 산의 정상에는 돌이 잘 자라게 되었다.

⑨ 소노우 공주 이야기

옛날 고다이고 현황이 교토(옛날 수도)에서 쫓겨나서 가사기의 행궁으로 도망갈 때, 소노우히메 라고 하는 예쁜 공주를 데리고 갔다. 공주는 적에 쳐들어와서 도망가면 중, 하인을 놓쳐버려서 산속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혼자서 도망치다가 숲 속에서 쓰러져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 아침이 되어 오야마 마을 사람이 숲에 나무를 하러 와서 공주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공주를 데리고 와 간호했다. 공주는 오야마에서 살기로 했다. 어느 날, 공주가 천신에게 참배하러 가니, 매화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었다. 공주는 매실을 따와 술물에 반세 그슬리고 햇볕에서 말려서 새까만 매실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은 '우바이'라는 영색약입니다. 고도에 가재가 말면 좋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마을 사람은 "정말 이 검은 매실 팔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공주가 가르쳐 준 대로 우바이를 만들어 교토로 가져갔다. 그러자 매우 비싼 가격에 팔려 마을 사람은 엄청 놀랐다. "대단한데?" "이 검은 매실, 이렇게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구나." 그로부터 오야마 마을과 이웃 마을에서는 산에 매실나무를 많이 심게 되었다. 그것이 쓰키가세바이린 숲이다. 그리고 오야마 마을 사람이 소노우공주를 구했던 숲은 소노우노모리 숲으로, 그곳에는 좋은 온천이 생겼다고 한다.

한국어판
감수 : 이노우에 나오키
풀이 : 무리카미 가오루
번역 : 여주희